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_____ 가자

장석주 | 시인

청소년기에 빼놓지 말고 읽어야 할 딱 한 명의 시인을 고르라면 나는 김수영(金洙暎, 1921~1968)을 들겠다. 김수영은 정직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불온성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며, 도시 소시민의 내면과 자의식을 해부학적으로 까발려 내보인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시인이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온갖 금기며 허위의식을 깨뜨리려고 좌충우돌하며 그는 중형무진으로 애쓴다. 180편 가까운 그의 도저한 오설의 시들은 곧 쉬지 않는 싸움의 도구이고, 싸움의 현장이다. 1958년 시집 《달나라의 장난》을 펴낸 김수영은 “모든 전위 문학은 불온하다”는 자신의 외침처럼, 현실의 전위에서 있던 불온한 시인이다. 전위는 늘 깨어 있고, 현실의 침예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위는 현실을 가로지르는 첨단이다. 행동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전위는 전위가 아니다. 그는 한 시대의 ‘전위’에 서려고, 시대의 반동이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곤핍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자신과, 동시에 늘 패배하는 자신의 한계를 투명하게 인식한다. 자신의 문학을 “녹슬은 펜과 빠와 광기”(《그 방을 생각하며》)라고 규정하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고 노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수영은 근대적 시민의식에 일찍부터 눈뜬 정신의 소유자로서 치열한 정직성을 극단까지 밀고 나간 시인이다.

또 한편으로 김수영은 시인으로도, 생활인으로도, 가장으로도 그 능력이 미흡했던 사람이다. 그의 시들은 어딘지 모르게 조약하고 미완이라는 느낌을 주고, 술값을 잘 안내고 취하면 아무에게나 주사를 부려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드물고, 번역과 양계 일에 매달렸지만 신통한 별이가 못 되었다. 그는 술에 취해 까닭없이 집안의 기물을 깨부수거나 아내에 대한 의치증을 드러내고 식구들을 학대했다. 그는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고 외쳤던,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다. 그는 “누가 무엇이

라고 비웃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애인이, 벗들이 무엇이라고 비웃고 백안시하든 그것이 문제일 까닭이 없다. 이 산만한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미이라와 같은 나의 생활 위에 살과 피가 한데 뭉친 거대한 걸작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고민했다. 그는 오로지 시에 들린 사람이었다.

죽은 지 사십 년이 가까워 오지만 김수영은 여전히 문제적 시인이다. 독문학자 문광훈은 550쪽이 넘는 방대한 저술로 김수영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전하고 있다. 기왕에 나온 주요 김수영에 관한 비평들을 비판적으로 훑고 난 뒤, 궁핍하고 척박한 나라에서 태어나 온몸으로 시를 살다 간 김수영의 시와 산문들을 꼼꼼하게 읽어낸다. 문광훈은 좋은 책을 “느낌에 느낌을, 생각에 생각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책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문광훈에게 김수영은 바로 그 느낌에 느낌을, 생각에 생각을 증폭시키는 시인임에 분명하다.

김수영은 느낌에 느낌을, 생각에 생각을 증폭시키는 시인이다. 김수영의 시 한 구절을 보자. “유리창이여 / 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대고 서기 시작했느냐?”(《너는 언제부터 세상과 배를 맞대고 서기 시작했느냐》) ‘유리창’은 투명하다. ‘유리창’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그 본질의 이상으로 삼는다. 있지만 없는 듯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유리창은 안·밖, 세상·나, 현실·비현실의 경계 위에서 있다. 그것은 “세상과 배를 맞대고 있다” 배를 “맞대다”라는 말은 통정에 대한 은유다. 깨끗해야만 할 “유리창”이 어느 때부터가 세상과 통정하고 있다. 더러운 유리창은 유리창이 아니다. 유리창은 시인의 시고 정신이다. 김수영은 세상과 배를 맞대고 있는 유리창에서 불순해져 버린 저의 시, 속물이 되어버린 저의 정체성을 보아 버린 것이다. 시인의 운명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비물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의 운명을 안고 있는 유리창과 같다. 문광훈은 예술의 존재 의미가 “삶의 확장적 움직임

《시의 희생자 김수영》 문광훈 지음 | 560쪽 | 값 25,000원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 발행인을 역임했고, 이후 계속해서 책 만드는 일을 해왔다. 청하출판사 시절에 계간 <현대시세계>와

<현대예술비평>을 펴내며 기획과 편집을 맡았고 월간 <현대시>, 계간 <시인세계>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신문과 잡지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햇빛사냥>, <완전주의자의 꿈>, <그리운 나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를 비롯해 많은 시집을 냈으며 최근 독서일기 형식의 <강철로 된 책들>을 출간했다.

속에서,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 고의 네트워크에 정신의 역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김수영만큼 부응할 만한 시인은 달리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나와 세계는 동시적으로 움직인다. 멈춤은 죽음이다. 움직임은 생명현상이다. 움직임은 “타자를 포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기실현의 운동”이다.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며 개체의 생명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생성적 존재로 거듭난다. 움직이는 주체인 나는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타자인 세계를 포착하고, 그것을 움직임 속에서 투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김수영 시를 다른 한국시인들과 차별화하는 지점이 바로 그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김수영이 돌아가는 팽이, 계속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내리는 폭포, 눕고 일어서는 운동을 반복하는 풀에 이끌렸던 건 우연이 아니다. 움직임의 극점에서 나온 게 <폭포>라는 시다.

김수영은 시·생활, 나·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꿰뚫어 본 시인이다. 정치적 후진성에 머무른 남한의 현실을 못 견뎌 하고, 미래보다 더 쪼잔하고 비겁한 소시민성에 갇혀 있는 저 자신에 대해 진저리쳤다. 그들은 사실 둘로 쪼갤 수 없는 동일체였으니까. 그러나 실제에서 시·생활, 나·너, 주체·세계는 분열되어 있고 저열한 혼란 속에 있었다. 김수영 시의 궁극은 이 모순과 일그러짐을 혁파하는 것, 꿰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본질로부터 도망가는 비본래적 삶을 추문화하고 초월성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나의 검게 타야 할 정신을 생각하며 / 구별을 용서하지 않는 / 밧고랑 사이를 무겁게 걸어간다” <<여름 아침>> 여기서 “검게 타(버린) 정신”은 움직임을 극한까지 밀고 올라간 끝에 마침내 그 내부의 운동성을 다 소진해 버린 상태다. 김수영은 “하나의 가냘픈 물체에 도저히 고정될 수 없는 / 나의 눈이며 나의 정신이여”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라고 노래했다. 그것은 언제나 흐르고 움직인다. “설움을 역류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태여 찾아

서 헤매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밑바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제 안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타버리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려고 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이, 저열한 문단과 척박한 후진국의 정치풍토가, 기만과 허위로 뭉쳐 있는 현실이 주는 중압감과 모멸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이 아니며 /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 /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여 /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 내 앞에서 돈다 /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된다는 듯이 /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 팽이가 돈다 / 팽이가 돈다” <<달나라의 장난>> 김수영은 돌고 있는 팽이에서 ‘성인聖人’을 본다. 돌고 있는 것은 쉬임없이 생활하는 것, 활동하는 것, 영원한 자기개신의 운동성이 구현되는 상태다. 이 움직임의 전체성 속에서 시인은 문득 현실의 모순과 시련을 넘어선 초월자(성인)의 삶을 예감하고 그 양태를 암시받는다. 시적 화자는 “수천 년 전의 성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나 그를 붙들고 있는 소시민적 삶은 그를 놔주지 않는다.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많은 마음”은 자기연민의 대상이 된 소시민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나가야 할 운명과 사명”을 직시한다. 그러나 그는 그 운명과 사명을 살지 못한다. 시적 화자의 눈앞에서 썩썩 돌아가는 ‘팽이’는 그를 비웃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서러움’이다. **장석주**